

전주 한옥마을 임대료 10% 인하

시와 건물주 모임인 한옥마을사랑모임, 상생 선언문 선포식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점 고려 3개월간 자영업자 돕기 결심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와 한옥마을 사랑모임은 전날 최명희문화관 회의실에서 전주한옥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생선언문 선포식'을 했다.

한옥마을 사랑모임은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건물주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를 내려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로 했다.

또 주변 건물주들의 참여를 권장해 한옥마을 내 상생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나아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옥마을을 안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찾는다.

이를 위해 시는 건물주와 자영업자 간

의 상생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

한광수 한옥마을 사랑모임 회장은 "한옥마을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크게 내재돼 있다"면서 "다른 건물주들도 이런 취지를 공감하고, 함께 해준다면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전주와 대한민국의 전역으로 확산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2일 최명희문화관 회의실에서 전주한옥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생선언문 선포식'을 했다. <전주시 제공>



고창군은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VR·MR·AR 콘텐츠를 개발했다. <고창군 제공>

“우와~ 교과서에서 보던 청동검이 눈앞에 있네” 고창군, 고인돌과 첨단디지털의 콜라보-VR·AR 체험 ‘꿀잼’

“우와~ 교과서에서만 보던 청동검이 눈앞에 있네.”

13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 스마트폰을 든 관광객이 '고창 청동기 AR' 앱을 실행하자 고창군 공식 마스코트인 '모로모로'가 나타났다. 모로모로와 함께 유적(447기, 세계 최대 고인돌 밀집지역)을 뛰어다니며 미션을 해결하자 전설의 청동검이 완성됐다. 화면을 터치하자 청동검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을 보던 관광객들은 '우와'하고 탄성을 질렀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첨단디지털 기술이 만났다.

고창군은 최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하나로 '고인돌박물관 VR(가상현실), MR(복합현실), AR(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을 완료했다.

고인돌박물관에는 VR과 인터랙티브 미디어(쌍방향·Interactive media) 체험존 등이 마련됐다. 2층 VR체험존에선 직접 죽림마을(고창 선사마을) 부족의 후계자가 돼 고인돌 쌓기, 전투 등의 미션을 해결한다. 특히 3~4명의 친구들과 동시에 함께하는 3D인터랙티브 체험존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관람객들이 선사시대 사냥꾼이 돼 숲속과 바다 속 사냥터를 스캔지 공으로 맞춰 실감나는 사냥을 해 볼 수 있게 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옥마을에 '전통정원' 생긴다

전주공예품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조성...오목대와 연결

전주 한옥마을에 전통정원이 생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 주차장 부지 1396㎡(422평)에 전통정원을 조성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오목대와 계단으로 연결된 이 주차장 부지는 주차 차량들로 인해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주시는 한옥마을만의 고유한 정서와 정체성을 담은 전통정원을 이달 안에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전주시는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광객들이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나무를 심고 단아한 느낌이 드는 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정원은 야외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한류마당과 전주의 전통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투영연못으로 꾸며진다. 바닥은 전통방식의 장대석 포장으로 조성했고, 꽃나무 가지로 휘어서 병풍 모양으로 만든 '취빙'과 마을 어귀나 다리 등에 세우는 수호신인 사람 형상의 '백수'도 설치됐다.

전주시는 황매화, 꼬리조팝나무, 백리향, 은사초 등을 심어 전통정원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전통정원 조성을 통해 전통놀이, 공연, 프리마켓 등이 일상이 되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



전주시가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 주차장 부지 1396㎡에 전통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오목대 쪽에서 내려다 본 전통정원 부지 모습. <전주시 제공>

하고 시민들의 소통과 다양한 활동, 문화 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유동욱 정읍시 문화행정국장이 13일 오후 첫 언론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올해 첫 언론 정례브리핑...문화행정 현안 설명

정읍시가 13일 오후 첫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첫 브리핑은 유동욱 문화행정국장이 주관, 문화행정의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유 국장은 주요 현안 사업으로 ▲'녹두' 공연(문화예술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자유치(관광과) ▲종합소득본 국세·지방세 확정 신고센터 운영(세정과) ▲시정사 업무공간 임차·사무실 재배치(회계과) ▲지적재조사 사업(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동학

농민혁명선양사업소)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국 소관 각 부서의 현안 사업 중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알릴만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등 브리핑을 통해 집중 홍보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2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시정 정례브리핑을 열고 있다. 해당 국·단·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며 충분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시정 소통에 나서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소방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정읍소방서는 오는 21일까지 '2020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생명존중의 문화 증진 및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의 일반인이 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경연 내용은 8분 이내에 심정지 발생상황이나 대응행동을 짧은 연극 형태로 퍼포먼스를 표현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미혼모 복지시설 '기쁨의 하우스' 내달 개관

익산시는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쁨의 하우스'를 다음달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설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 기관인 익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쁨의 교회 안에 신축 중이다.

906㎡ 부지에 지상 2층, 전체 건물면적

460㎡ 규모로 건립되며 미혼모 15명이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미혼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미혼모들은 6개월 동안 이 곳에서 숙식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한편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지중해스타일